

주일의 말씀

대림소한도(待臨消寒圖)를 그립니다!



윤지종 미카엘 신부 | 모화본당 주임

대림 제1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시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시기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과 마지막 날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동시에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하면 좋을까요?

흑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를 아십니까? 구구소한도는 옛 선비들이 긴 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동짓날 창호지에 흰 매화송이 여든 한 개(9×9)를 그려서 벽이나 창문에 붙여 두고, 매일 하나씩 흰 매화송이에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붉은 색칠을 했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동지로부터 81일째 되는 날, 드디어 흰 매화가 모두 붉게 물든 구구소한도가 완성되어 문을 열어 보면 봄을 알리는 진짜 매화가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겨울의 매서운 추위마저 아무렇지 않게 만드는 구구소한도! 옛 선비들의 아름다운 기다림의 몸짓이 담긴 진짜 멋진 그림 아십니까?

옛 선비들이 구구소한도를 그리면서 봄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대림시기동안 구구소한도 같은 대림소한도(待臨消寒圖)를 그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81개의 매화송이 대신 감사와 봉헌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4주간

의 기도 송이를 그려놓고 매일 하나씩 채워 나가며 성탄 준비를 하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흰 꽃송이를 붉게 물들여 가다 보면 어느새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이, 기도 송이를 채워 나가다 보면 분명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기도 송이 대신 회개 송이를 그려놓고 보속과 선행으로 채워 나가도 좋을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탐욕스럽고 방탕했던 생활을 나눔과 절제의 삶으로 색칠해 나가고,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사랑과 용서와 겸손의 덕으로 불 밝혀 나간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대견해 하시며 칭찬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삶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대림시기동안 회개 송이를 채워 나가는 그만큼 우리가 누리게 될 성탄의 기쁨도 더 클 것입니다.

대림소한도! 기도 송이! 회개 송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대림시기 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꼭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루카 21,28) 247



2013년 교구장 사목교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2년 전 우리 교구는 100주년을 경축하였고, 지난해에는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뜻 깊은 해에, 지난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교구 100주년 기념사업 가운데 제2차 교구 시노드와 교구 100년사 편찬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기쁘고 주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교구 100주년 기념 대성당 건립은 공정이 조금 늦어졌지만 별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교구민들이 교구 100주년 기념 대성당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100년사 편찬은 한 세기를 돌아보며 마무리한다는 뜻도 있지만 새로운 세기를 위한 계기로서 더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교구의 지난 역사를 통해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은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는 지난 100년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땅의 얼굴을 새롭게”(시편 104,30)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며, 우리가 제2차 교구 시노드를 개최한 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구 시노드의 결의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합의가 아니라 첫 공의회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성령과 우리의 결정”(사도 15,28)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제2차 교구 시노드에서 결의한 사항들을 시급하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실행에 옮김으로써 ‘새 시대 새 복음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 시대 새 복음화’는 비단 우리 교구 뿐 아니라 보편 교회의 관심사이며 초미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2011년 10월 11일에 자의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을 통하여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교서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새로운 것은 복음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가 직면한 환경이며, 급변하는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도전과 과제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복음화’는 복음을 전하는 일의 출발점이 되는 내재적인 복음화의 중요성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고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우리 교구 제2차 시노드의 지표 및 의제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성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과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러한 과제를 위한 탁월한 지침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이자 『가톨릭교회 교리서』 반포 20주년이 되는 2012년 10월 11일에 시작된 ‘신앙의 해’는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해’가 시작된 지난 10월 11일에 계산 주교좌성당을 비롯하여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신앙의 해’ 개막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해’가 끝나는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도 계산 주교좌성당과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폐막미사를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해’를 통해 모든 교구민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신 믿음의 보화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제2차 교구 시노드의 결의를 실천에 옮김과 동시에 새로운 복음화의 사명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경축하며, 실천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내용을 재발견하고, 신앙 행위를 성찰하는 것은 특히 이 신앙의 해에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할 책무”(『믿음의 문』 9)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1. 교구와 대리구는 제2차 교구 시노드 결의사항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팀을 구성하여 자료를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며, 지역별로 혹은 본당별로 순회하며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교구 시노드의 결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논의되고 또 결정되었는지를 모든 교구민이 알아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2.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교우들이 신앙의 유산을 새로이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교구와 대리구와 각 본당은 신자재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3. 교회의 품 안에 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이들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대리구와 본당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에 모든 교우들이 판공성사를 보도록 권유하는 운동을 마련하고, 특히 냉담 교우들이 이 기회에 회도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서는 찬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교구민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012년 12월 2일 대림 첫 주일에

†. 김 현기 타대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타대오) 대주교

청소년 사목의 현장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

이영동 치릴로 신부 | 교구 학교복음화 담당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마르 9,14-29). 아이는 어릴 적부터 병어리 영에 들려 고생합니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뻗뻗해지고, 소리를 지르고, 불속으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쳐주기는커녕 아이를 두고서 논쟁만 합니다.

지금 세대와 어찌 이렇게 비슷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날뛰기도 하고, 기가 빠져 죽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뛰어내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주는 이는 적습니다. 이 일을 놓고서 서로 논쟁만 합니다. 제도가 잘못되었다, 무엇이 문제다,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 논쟁은 하지만 정작 아이를 고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는 “하실 수 있으면” 도와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는 이 세대야!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나? 믿는 이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는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병

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교회와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많은 처방들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과 처방이 기도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는 이에겐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다른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유치원·초·중등교사들이 지역별로 학교복음화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사들과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복음화를 위한 미사 -

대구지역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7시	성모당
포항지역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7시	장량성당
경주지역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7시	성동성당
구미지역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7시	신평성당
김천지역	매월 넷째 수요일 오후 7시	김천황금성당

햇살 담은 이야기 - 마음으로 읽는 삶의 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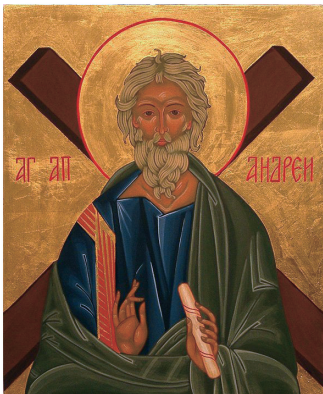
준비된 자만이 쓰임을 얻는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들 중 암보(暗譜: 악보를 보지 않고 외워서 연주하는 것)로 지휘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니(Toscanini, Arturo)는 본디 지휘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초년 음악가 시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오케스트라의 첼로연주자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오페라단의 지휘자는 실력도 부진하고 성격도 괴팍했다. 이로 인해 단원들과도 마찰이 심했는데 하루는 단원들과 사소한 언쟁 끝에 짐을 싸들고 떠나 버렸다. 오페라 공연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낭패였다.

이때 토스카니니에게 지도를 받고 있던 한 솔로가수가 "토스카니니가 이곡 전체를 외우고 소화하고 있으니 그를 지휘자로 추천합니다."라고 했다. 단원들은 이제 겨우 20살 된 그가 어떻게 이곡 전체를 외우고 소화할 수 있느냐며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단원이 "지금 한번 시켜 봅시다. 시켜봐서 손해 날건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지휘자는 없고 당일 연주는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단원들에 의해 지목된 그는 생전처음 지휘대에 올라섰고, 관객들과 단원들은 놀라움과 경탄으로 환호했다. 토스카니니는 지휘대에 놓여있는 악보를 덮어놓고 순전히 암보로 전 악곡을 지휘했던 것이다. 토스카니니가 암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지독한 근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어둠침침한 오케스트라 석에서 작은 불빛에 의지하여 악보를 읽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그는 차라리 오케스트라 전체의 악보를 몽땅 외워 버리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고, 본래는 핸디캡이었던 약점을 노력과 창의력을 통해 강점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 금주의 성인 사도 성 안드레아



사도 성 안드레아 (11월 30일)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분이신 안드레아 성인께서는 갈릴래아 베싸이다 출신의 어부로 일찍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어 그의 형님이신 성 베드로 사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리스 북부지방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의 첫 글자인 '키(X)자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셨다. 어부와 생선장수, 러시아와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다.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 1.14)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대구주보에서는 믿음의 눈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찾는 영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전례와 성사 안에,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과 순수 지으신 피조물들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담아 주세요!

1) 피사체의 종류

- 가. 전례와 성물(제대, 감실, 고상, 성당, 성상과 성화, 미사와 성사, 신심행사 모습 등)
- 나. 사람들(성직자, 수도자, 교우들, 일반인 등 누구라도 좋음)
- 다. 자연(풍경과 정물)

2) 참가자격 : 대구대교구 내에 교적을 둔 가톨릭 신자

3) 공모기간 : 2012. 11. 25. ~ 2013. 10. 31.

4) 사진 규격 : JPG파일(300DPI 해상도 기준
1,600×1,200~3,500×2,625픽셀)

5) 출품 방법 : 콘테스트 공식 사이트
(<http://contest.daegujobo.or.kr>)에 업로드

6) 출품 내용

- 가. 사진 파일 (컬러·흑백 모두 가능)
- 나.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 한글 파일
 - _ 이 사진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경위나 이유
 - _ 피사체에 대한 설명
 - _ 출품인의 본당, 이름, 세례명, 연락처

7) 출품 제한 : 1인당 월 3점

(타 공모전에 입상작 또는 표절작품은 응모불가)

※ 심사 기준, 시상 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콘테스트 공식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contest.daegujobo.or.kr>

예수님을 만나다는 우리아들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2대리구 성소를 위한 기도모임

일시: 12.10(월) 11:30

장소: 범어성당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성소모임

기간: 12.8(토) 16:00~9(일) 14:00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생~만34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8353-2323

성프란치스코하비에르사도회 성소모임

일시: 12.9(일) 14:00

장소: 서울 구기동 본원

문의: (010)2360-5649

피정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피정

지도: 최봉도 신부

대상: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139차: 12.14(금)~16(일), 140차: 1.11~13

장소: 성 베네딕도 왜관피정의 집

신청: (010)5613-1762 / (054)971-0722

<http://innerheal.kr> 참조

렉시오디비나의 향기

기간: 12.8(토)~9(일)

장소: 까리따스 젊음의 집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010)2568-5231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12.8(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천주의 어머니와 출생의 은총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루르드 샘물 증정

MR부부피정(성경묵상 프로그램)

11차: 12.22(토) 7:30~23(일) 16:00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대상: ME주말을 경험한 부부,

사제, 수도자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수도생활 체험 피정

기간: 12.14(금)~16(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여성 / 3만 원

문의: 황안젤라수녀, (010)5313-0241

행복 조이플스테이

초·등(여): 1.15(화)~16(수)

중고(여): 2.16(토)~17(일)

엄마 + 딸: 4.6(토)~7(일)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교육관

신청: (010)9056-9005

교육 | 모집

2013년 해외선교사를 위한 교육

19차: 1.21(월)~2.22(금)

대상: 선교사, 교포사목자

문의: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02)953-0613

청년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 2.19(화)~26(화), 7박 8일

주관: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대상: 20~35세 청년

문의: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홈페이지: <http://www.terrasanta.kr>

제41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고: 1.3~2.24 (3, 5, 7주 선택)

아일랜드 학생들과 정규수업

대·일반: 1.1~2.17 (6, 7주 선택)

더블린 IBAT or CES 어학원

문의: 그린피스E&T, (02)3446-4253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3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2월 3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 3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12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12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성당
꾸르실리스타 월례미사	12월 3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로 교육관 대성당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12월 3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 집
떼제미사	12월 8일(토) 오후 6시	삼덕성당

의사가 보약 피오르 오는 안의원

원 방 한 의 원

前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現 경북의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현(요셉)

☎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철곡 박 이비인후과

중이염, 축농증, 비염
이명, 난청, 보청기 상담
편도염, 인후염, 역류성질환, 성대질환
여지염증 클리닉(달팽이관)

이비인후과 전문의/원장 박 규 욱(바오로)

동천동 주민센터 옆 파리바게트 2층

☎ 053)325-7577

한결같은의원

가정의학과 / 소아과 / 피부과 / 내과
레이저클리닉 / 보톡스 / 필러

053)965-1441

반아월 이마트내 2층 · 원장 문세민 스테파노

"2대째 30년 전통"

성심결혼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644-4007, 558-8003

비산대거리 서부초 옆 류성실(마리아)

행사 | 모임

영천성당 견진

일시: 12.2(일) 10:30

대구가톨릭음악원 성음악 발표회

일시: 12.3(월) 19:30

장소: 동구문화체육회관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2013 말씀과 함께 - 일러스트 전시회

기간: 12.3(월)~13(목)

(예쁜 엽서SET 증정)

장소: 바오로딸 서원(동성로 공평동)

무지카 우니카 아카펠라 음악회

일시: 12.8(토) 18:30 (무료)

문의: 425-5185 / (010)2658-5185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YHY) 대상

목적: Youth Helping Youth 캠페인에

참여한 청소년 격려 및

활동 장려

마감: 12.8(토) 11:00

분야: 활동 / 캠페인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

자세한 내용은 www.jesusclub.or.kr

교육 | 모집

만촌성당 30주년 기념 대림 특강

일시: 12월 매주 화요일 20:00

장소: 만촌성당, 문의: 754-2288

강사: 김길수 교수 12.4(화)

임명준 선생 12.11(화)

정호승 시인 12.18(화)

사회교리 주간 특강

시간: 미사 후 19:30, 장소: 삼덕성당

12.11(화) 복음 토크,

박병규 · 고진석 신부

12.12(수) 에너지 위기와 탈핵, 맹주형

12.13(목) 국제공동체와 평화, 두봉주교

주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시편성가연수(Sr.김정선)

발성법(박재연)

일시: 12.2(일) 15:00, 회비: 1만 원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지성인을 위한 신앙특강

일시: 12.15(토) 10: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우리문화 우리언어로

주님을 찬미하리라 / 5천 원

강사: 최성준(이나시오)신부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 (476-6211)

통기타, 우쿨렐레, 대금, 오카리나, 초크

아트, 톨페인팅, 바이올린, POP, 플룻

13회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1차: 1.2(수) 출발 (8, 12주)

2차: 2.28(목) 출발 (8, 12주)

3차: 3.24(일) 출발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모집: 12.17(월) 부터

개강: 2013.1.7(월) 부터

과정: 일반과정(취미, 자격증)

음악원(성가대지휘, 1:1레슨 등)

문의: 660-5554~7

2013 맨발 가르멜 재속회 회원모집

첫째 주일 문의: (011)530-7763

월요일 문의: (011)9321-3497

넷째 주일 문의: (010)6263-0947

월요일 문의: (010)4733-1715

채용

2013 동명어린이집 교사 채용

자격: 유아교육과 졸업예정

혹은 졸업자

연령제한: 만 24세 미만

문의: (054)976-6857, 8435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2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 (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역기(바오로) 011-514-3855

허리 아프고 무료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승현역 2번 출구



www.appleuro.com

에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전문 의 원장 강 일(베드로)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안심원이 함께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성가요양원 성가어르신복지센터

입소 성가요양원 054)976-8122

문의 성가어르신복지센터 054)976-8123
<http://www.sug.or.kr>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안데스 호수소금

동성악국 현영희(아네스)
박준구(베드로)

T. 053-766-3815
010-3295-4476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대레사소비센터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

청과·야채·선어·정육
신선·가공식품·공산물·생필품
생필·패션잡화·수입주방·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 맞은편)
대표이사 장영일(그라시오)신부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 010-8345-9479
이주석 (요셉)